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② 찬란한 빛의 그물 '투명 사라'

▶ 한줄 요약
고려불화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할까? 그 비밀은 '디테일'에 있다. 해외에 유출되어 보래야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려불화. '신의 경지'라 칭송되는 그 마이크로 세계를 불교미술사학자 강소연 교수가 소개한다. 격주 연재.



초미세 선묘로 그려낸 관음 天衣

'투명 소재' 표현의 천재

고려시대의 화승(畵僧, 불화를 그리는 승려)은 투명한 소재를 그리는 데 천재였다. 버드나무가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정병, 영롱히 빛나는 수정 염주, 보관과 몸체를 장식한 영락 구슬, 달빛 같은 투명 광배 등. 이들을 모두 투명하게 표현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이런 소재들 중에서도 압권은 '투명 사라'이다. 사라(紗羅)는 수월관음이 걸치고 있는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숄이다. 투명 사라는 고려불화만의 전유물로 유명하다.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어떤 화가도 결코 흉내 낼 수 없었던 것. 고려 화승들만의 전매특허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工巧)롭다. 필치가 매우 유려하여 그 섬려(纖麗)함은 극(極)에 달했다.(탕후, 〈고금화감〉)"라고 극찬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당시 고려불화를 모사한 작품들이 있는데, 세부 필선의 정교함이 현격히 떨어져, 바로 일본 작품이라는 것이 들통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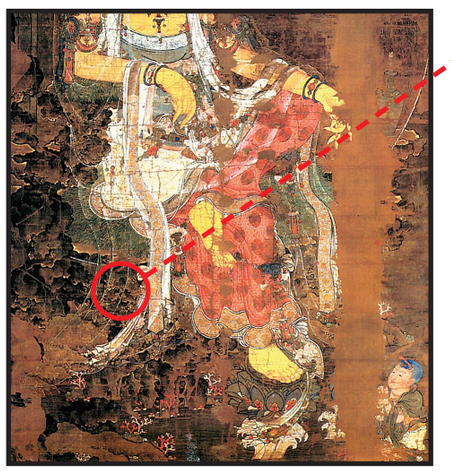
정녕 사람 손으로 가능한가

당시 그들이 극찬하였던 흠모의 대상, 고려불화. 절대 모사 불가능했던 결정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 핵심에 있는 '투명 사라'를 보도록 하자. 수월관음의 머리 꼭대기 보관을 덮어 흐르는 투명한 베일. 이 베일은 어깨와 몸통을 감싸고 발 치 끝까지 하늘하늘 부드럽게 떨어진다. 너무나 얇디얇아서 살짝 미풍에도 휘날려 끝자락이 반전된다. 멀리서 보면 투명 막이 수월관음을 감싼 듯 보이는 데, 가까이서 보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기가 막힌 내공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월관음의 사라 디테일(그림2)를 주목해 보면, 사라의 묘선에는 흰색과 금색이 쓰였다. 외곽선은 반짝이는 금니선과 푸른 기운이 도는 흰색 선을 겹쳐서 썼다. 그런데 비단 천의 질감 표현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늘고 가는 씨줄과 날줄, 수천 수백 개가 가로와 세로로 모자이크식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면에 제시한 사진(그림2)을 통해, 기상천외한 사라의 모습이 그 일부나마 전달되었으면 한다.(씨줄 날줄의 표현이 잘 보이도록, 가장 단순한 문양의 패턴을 선별 게재하였다.) 마치 거미줄과도 같은 극세사의 무수한 선들이, 무려 4m가 넘는 수월관음의 온 몸을 감싸며 가로지르고 있다.

천의무봉, '초미세한 철선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가는 선들이 무려 3~4m 길이로 흔들림 없이 그려져 있다. 그것도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을 주어 크고 유연하게 포물선을 그리는 선들이 0.05mm 이하의 간격으로 촘촘히, 가로 세로 격자 문양을 이루고 있다. 미세한 선들의 두께는 시작점이나 끝점이 변화가 없는 '철선묘(鐵線描)'다. '철선묘'란 선묘의 두께가 일정하여 변함이 없는 선묘를 말한다. 반대로, 선의 두께가 일정치 않고 강약 리듬이 강한 선을 '비수선(肥瘦線)'이라고 한다.

천의무봉이 따로 없다. 일본 학자들이 일찍이 놀란 고려불화의 특징이다. 이런 선묘는 호흡이 거칠거나 불안정하면 결코 나올 수 없다. 무수한 마이크로 선들의 길고도 길게 전개되지만, 그 속에 겹침이나 떨림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입정(入定) 상태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선이다. 입정이란, '고요함에 들다' 또는 '삼매에 들다'라는 뜻이다. 주지하듯이, 마음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호흡은 미세하고 길어진다.



그림①



그림②

'투명 사라' 고려 불화 전유물
"섬려함이 극에 달했다" 극찬
0.05mm 철선묘로 사라 그려

입정 수준의 호흡 아니면 불가
청정심 이룬 투명한 마음 표현
'천의무봉' 따로 없을 최고명작

그림①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하반신 부분.

그림② 수월관금의 투명 사라의 디테일. 초미세한 그물에 주목해봐야 한다. 크고 유연하게 포물선을 그리는 선들이 0.05mm 이하의 간격으로 촘촘히, 가로 세로 격자 문양을 이루고 있다.

핵심 요소들, 왜 '투명'한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긴 날숨 위로 석가모니의 전생이 펼쳐졌다"라는 말이 있듯, 고요함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은 얇고 길어지고, 그 고요함의 밀도는 전생도 꿰뚫는다. 궁극의 고요함과 하나됨을 열반(涅槃) 또는 적멸(寂滅)이라고 한다. 고요함이 밀도를 높여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투명함'이다. 대상이 투명해진다. 즉, 그것을 아는 마음도 투명해졌다는 반증이다. 수행의 대상은 하얀 빛으로 변하고 그것은 투명하게 변하고 결국은 없어진다. 대상도 없고 그것을 보는 '나'도 없다. 내가 없어지는 순간, 지구 크기만 한 투명한 여의주가 나타난다. 투명한 여의주들이 무수하게 파도친다.

시인 김수영의 시 풀의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처럼, 파도치는 여의주들을 보려 하면, 보려하는 의도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그 변화무쌍함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나옹 화상은 그의 '완주가(玩珠哥)'에서 "이 신령한 구슬, 영롱하기 짝이 없네… 모습도 없고 형태도 없으면서 형상을 드러내니, 오가는 자취도 없어 헤아릴 수도 없도다"라고 깨달음을 묘사하고 있다.

〈화엄경〉에는 "불이(不二)의 상태가 되어 청정법신(淸淨法身)과 하나가 되면, 마음이 미동도 없는 투명한 유리처럼 맑고 맑은 상태 그대로이다"라고 쓰여 있다. 고려 화승들이 고려불화에서 사라, 여의주, 광배 등 핵심적 요소들을 왜 투명하게 표현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투명 사라' 무엇을 상징할까

관음보살은 '백의(白衣)관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얀 천의(天衣)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얀색은 '청정한 마음'을 상징한다. 하얀색과 불가분의 관계인 관음보살. 그렇기에 관음보살이 계신 곳을, 하얀 꽃이 만발한 '백화(白華)도량' 또는 '백화산'이라고 한다. 청정을 상징하는 '백의'를 '투명한 사라'로 묘사한 경우는 고려 수월관음도 밖에는 없다. 여타 시대 및 여타 이웃나라의 수월관음도를 살펴보면, 모두 불투명한 백의로 표현하고 있다. '투명한 백의'는 고려 수월관음만의 독자적인 특징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 그물 같은 이 천의의 기능은 무엇일까? "관음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고 포섭하는가"라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구절에는 "나는 대비법문광명행(大悲法門光明行, 크나큰 자비 광명의 묘법)을 성취하였다. 그 대상에 따라 그 앞에 나타나, 크나큰 광명의 그물(大光網)을 놓아 중생들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라고 쓰여 있다. 청정한 자비의 빛은 드넓은 허공에 그물처럼 광활히 퍼져있고 그것은 중생을 뜨거운 번뇌로부터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크나큰 광명의 그물'이, 관음보살의 눈부신 투명 사라로 시각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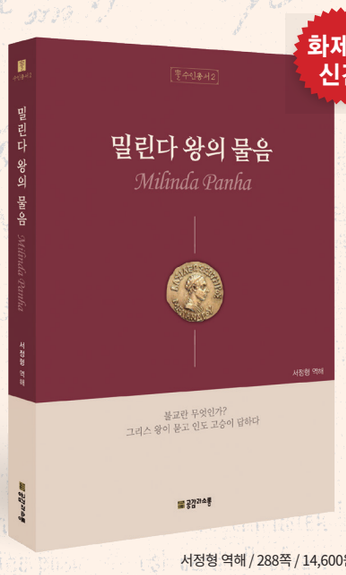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지극히 청정해지면, 힐링 에너지가 돌기 시작한다. 말 그대로 온 몸 구석구석 쌓인 검은 번뇌가 맑혀지면서, 온갖 고질적인 병들이 단박에 타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정한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관통할 때, 즉 그 분(관음보살)이 오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법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용맹한 관자재보살로서/ 깊고도 청정한 대 자비심을 일으켰노라/ 구름 그물과도 같은 신묘한 광명을 두루 뻗쳐/ 드넓기가 허공과 같고 청정하기가 그지없다.(我是勇猛觀自在 起深淸淨大慈悲 普放雲網妙光明 廣博如空極淸淨)"

—〈화엄경〉 中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 비구 페살라(Bhikhu Pesala)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리스 데이비즈(T. W. Rhys Davids)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리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